“全 불법재산 이번엔 꼭 찾아내야”

김동철·최재성·유기홍·우원식·김제남 의원 5人

‘전두환법’ 발의 주역… 검찰 재산압류 가능케 해

김동철 최재성 유기홍 우원식 김제남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하면서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의 공로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김동철·최재성·유기홍·우원식,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유·최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고위공직자 추징특례법 개정안’, 우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내놓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 역시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부패재산 몰수 회복특례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의 전두환 추징금 관련 법안을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병합심사해 최종적으로 전두환 추징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2일 마침내 발효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된 것이다. 또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김동철 의원은 17일 이틀간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뒤늦게나마 입법 정비를 하고 검찰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면서 땅에 떨어진 정의를 국민의 눈높이로 되돌리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고생하는데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이 기업을 협박해서 얻은 자금으로 그의 자손들이 수천억원대 재산을 굴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여건이 마련된 만큼 반드시 미납된 추징금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도 “검찰이 법이 발효되자마자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과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오랜만에 검찰다운 일을 한 것”이라고 긍정평가한 뒤 “검찰이 남은 추징금 1672억 모두를 추징하고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조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래야 그동안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봐주기식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추징금 확정이 된 지 16년이 지났는데 이제 비로소 검찰이 출발선에 선 것 같다”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고 불법적인 재산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는 꽤 긴 터널로 다시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도 검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민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의지만 있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공사 창고서 찾은 공예품

검찰이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 시공사의 창고 모습. /연합뉴스

사형 구형 이어 재산 압류까지… 채동욱·전두환의 ‘악연’

검찰이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전 전 대통령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8년 전인 1995년 11월부터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평검사로 마약사건을 전담하던 채 총장은 ‘5·18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했다.

채 총장은 같은해 12월3일 안양교도소 출장 조사를 시작으로 전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았다.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자주 신경전을 벌였다.

1996년 3월1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당시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채 총장의 신문에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계통이냐”고 대꾸했다. 전 전 대통령은 “하마터면 그때 사살돼 이번 재판에 서지도 못할 뻔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1996년 8월5일 채 총장은 전두환 피고인에게 반란수괴와 상관살해미수·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채 총장은 A4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 직접 썼다.

채 총장은 지난 5월 추징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채 총장의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노태우 미납추징금 추가로 거둬들인다

법원, 재우씨 ‘차명주식 매각’ 항고 기각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가 자신의 차명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재우씨가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주식매각 명령에 대한 재우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우씨는 항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에게 맡겨놓은 230억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차명주식까지 강제집행한다면 검찰의 집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재산을 환수하려고 재우씨와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120억원, 230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재우씨에게 69차례에 걸쳐 52억7716만원을 회수한 반면 신 전 회장에게는 5억1000만원만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소유 재산이 있는데도 유독 재우씨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이 호준씨 등의 명의로 돼 있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명의에도 불구하고 재우씨 소유로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같은 법원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지난 5월 호준씨와 이흥수씨 명의의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검찰의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로라씨에스는 재우씨가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 업체로 알려져 있다.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추징금은 현재까지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연합뉴스

박수근·천경자·이대원 작품만 20~30억대

압류물품 뭐가 있나

불상·공예품·도자기 등 200여점 확보

비자금 통해 구입 확인 땐 국고로 귀속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이 17일 전날 확보한 미술품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면서 압류 재산의 내용과 가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 및 압류 물품은 박수근, 천경자, 이대원 화백 등 유명 작가의 고가 그림을 비롯해 병풍, 불상, 공예품, 도자기류 등 200여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술계에서는 박수근, 천경자, 이대원 화백의 작품 3점만도 20~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국씨가 운영하는 허브빌리지서 압수한 높이 2m의 불상은 17세기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라마 양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가격만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무로 만들어 그 위에 금을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국내서도 거래되기는 하지만 2m 크기의 불상은 유통 사례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화가’ 박수근 화백의 작품인 ‘빨래터’는 지난 2007년 5월 옥션에서 45억원2000만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으며, 지난해 그의 작품들은 미술 시장에서 1억7000만원에서 15억2000만원 사이에 거래됐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미술품 호당가격지수 조사에서도 박 화백의 작품은 호당 평균 2억750만원을 기록했다.

생존 한국 작가 중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작가 중 한 명인 천경자 화백 작품은 지난해 옥션에서 4000만원에서 4억원 사이에 낙찰됐고, 이대원 화백의 유화는 3000만원에서 2억원을 호가했다.

미술계 한 관계자는 “작가 한 사람의 작품도 제작연도나 소재, 완성도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어서 전씨 일가의 미술품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작가 3명의 평균 작품 가격대만 고려해도 최소 20억~3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미술품 가치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 물품들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징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L씨와 모 대학 교수 H씨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교수의 경우 장남 재국씨와 친분이 두터우며 여러 명의 미술품 거래상과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전씨 일가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는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인기자 kki@·연합뉴스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상가대출 * 아파트대출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차량대출 * 기타대출

신 용 / 정책자금대출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신용대출·일일상환 대출
* 직장인 햇살론 - 1,000만원 한도
직장인 신용대출·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한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본 점 | 궁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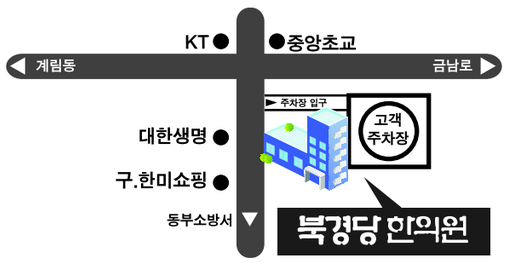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2013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Ⅰ.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생 ~ 대학생
– 단, 2012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선발예정인원 : 총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영광군에서 선발)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Ⅱ.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1부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에 한함)

Ⅲ. 선발일정
○서류접수 : 2013. 7. 1(월) ~ 7월 31일(수)
○최종선정 : 2013. 8월경 발표 (2013년 장학 회보에 발표)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13.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Ⅵ.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신청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04 염주체육관 117호, 사무총장 강 대 의
www.edaynews.com나 ‘재영광군향우회카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T. 010-4192-5182 / 062-673-0419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Ⅴ.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광영광군향우가족중 광주시민은 향우장학회사무실로 우편접수하시면됩니다